

치과이용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행동과 태도에 관한 연구

남상분 · 한양금^{1†}
김포시보건소
¹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Behavior and Attitude of Pediatric Handicaps in Dental Facilities

Sang-Bun Nam and Yang-Keum Han¹

Gimpo City Health Center, Kyonggi-Do 415-730, Korea

¹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Daejeon Metropolitan City, 300-711,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on handicaps in randomly chosen 6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This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September 20 and October 23,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49.7% of individuals have answered that their dental health are not well maintained. (2) The number of brushing activity per day varied according to different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each individual. ($p<0.05$) (3) 56.7% of people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no experience with scaling. (4) 58.9% of people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toothache and gum bleeding problem. (5) 64.4% of individual have answered that they would like to attend seminars on maintaining dental health. ($p<0.05$) (6) 65.1% of individual infrequently visit to dental facilities. (7) 41.6% of individual possess health care card. (8) 61.8% have answered that disabilities and dental health are closely related. ($p<0.05$)

Key words Physical Disabilities=PD, Mental Retardation=MR, Blindness and Visual, Health insurance, Disorder grade

서 론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145만 여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¹⁾. 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부터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발육부전이나 이상 등에 의해 선천적 장애인이 되었거나 또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산업사고, 약물사고 등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심신의 장애를 입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다운 삶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장애인의 수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 필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소외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들에 있어서 의료에 대한 욕구는 다른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여겨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에 치과진료시설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합복지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재

활 의학적인 치료는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장애인 전용 치과시설을 설치한 곳이 없고 일부 치과대학의 소아치과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료실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뜻이 있는 개업의들이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구강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문제해결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대도시 편중과 사회의 이해부족, 편의시설의 부족, 교통의 불편 등은 장애인들의 치과의료 이용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강위생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량하고, 높은 구강질환 발생에 비해 치료율이 낮으며, 나아가 응급치과 의료 수요가 높다는 사실이 선행된 많은 연구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²⁻⁶⁾.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행동과 태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1999년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소

[†]Corresponding author
Tel: 042-630-5854
Fax: 042-630-5848
E-mail: ykhan@djhealth.ac.kr

Table 1. Survey Institution

Institution	Surveyed Respondent & Surveying Method
A	This Institution is a local hospital for public health that has a dental clinic for the disabled. The dental clinic for the disabled has provided dental treatments for the disabled residing in the relevant region and the other region as well, who were surveyed by individual direct interview with questionnaire.(93 Surveyed)
B	This Institution has conducted a program of calling-on-patient nurses for the disabled, who surveyed, on behalf of us, the disabled staying at home.(83 Surveyed)
C	This Institution was founded for the disabled' unlimite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realization of equal opportunities in respect of human rights, interests, education, medical care, policy making, childcare, publishing, gathering, solidified activities, international relation, etc. The disabled who visited this Institution were surveyed by individual direct interview or mail with questionnaire.(55 Individually Interviewed, 11 Surveyed by Mail)
D	This Institution is a welfare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and has conducted a program of voluntary-support dental treatment for the disabled. Such disabled who has received voluntary-support dental treatment 1-2 time per month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28 Surveyed)
E	Surveying was made, by direct individual interview or through representative, on the disabled who has made use of a welfare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a vocational school or any school of special purpose. (72 Surveyed)
F	This Institution is a school for the mentally retarded, whose parent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 through representative, after education of the parents on oral health.(27 Surveyed)

재의 기관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 시설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 기관을 방문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또는 우편 등으로 500부를 설문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430부로 회수비율은 86% 이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한 36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2. 연구 방법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장애인 기관 및 의료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설문지의 형태는 구조화 및 비구조화 되게 작성하여 각 기관에 의뢰 및 재가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스스로 작성하게 하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치과를 이용한 장애인을 만나거나 전화 조사한 후 10명에게 사전조사(pre-testing)를 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 하였다.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를 정리하여 SPSS/win 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결과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를 분석하였고,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집단간 평균의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적인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결 과

1.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35.42세로 최소 연령은 4세이며, 최대 연령은 96세였다. 이는 장애나 연령으로 인해 응답이 불가능한 응답자들의 경우 부모나 교사 등의 대리인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59.7%, 여성이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 39.9%, 초등학교졸 18.2%, 무학 16.4%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상태를 보면, 응답자들의 59.5%가 미혼, 40.5%가 기혼이었으며, 평균 가족수는 3.56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6.2%, '정신지체' 26.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88.5%가 장애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장애등급은 '2급' 33.3%, '3급' 22.7%, '1급' 27.1%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장애시기는 '후천적' 64.8%, '선천적' 35.2%로 나타나 장애발생의 후천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기간은 평균 20.85년으로 대체로 만성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73.3%인 236명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만성적인 장애문제는 직업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가구월수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월수입은 평균 55,057만원으로 응답자들의 평균 가족수인 3.56명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의 월수입에서도 '50만원 미만'이 43.3%, '50-100만원'이 21.3%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생활비를 '본인의 고정적인 월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가족원의 고정된 월수입(42.5%)'이나 '정부 보조(18.6%)'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63.3%가 본인, 36.7%가 교사나 부모와 같은 대리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로 인해 응답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대리인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결과이다. 장애인 자신이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들의 태도나 입장에 대리인들의 가치와 태도가 투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행동과 태도에 관한 사항

(1) 개인의 치아건강에 대한 생각

응답자들의 치아건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Table 3에

Table 2. General Information

Factor	Variable	Mean (%)	Total	
Sex	M	59.7 (218)	100.0(365)	
	F	40.3 (147)		
Education	Non	16.4 (55)	100.0(336)	
	Elementary School	18.2 (61)		
	Junior High School	13.2 (45)		
	Senior High School	39.9 (134)		
	Junior College	3.9 (13)		
	University	8.3 (28)		
Married	Yes	40.5(141)	100.0(348)	
	No	59.5(207)		
Disability Type	PD	56.2(200)	100.0(356)	
	B & V	2.2(8)		
	D & HI	5.6(20)		
	MR	26.7(95)		
	Added	9.3(33)		
Registration	Yes	88.5(314)	100.0(355)	
	No	11.5(41)		
Grade	1	27.1(92)	100.0(339)	
	2	33.3(113)		
	3	22.7(77)		
	4	7.7(26)		
	5	6.8(23)		
	6	1.8(6)		
	Non-grade	0.6(2)		
	Period	Congenital		35.2(117)
Acquired		64.8(215)		
Occupation	Non	73.3(236)	100.0(322)	
	Administration	9.6(31)		
	Special	1.9(6)		
	Technique	1.6(5)		
	Office Clerk	2.2(7)		
	Service	1.9(6)		
	Self-support	1.2(4)		
	Production	7.5(24)		
	Household	0.9(3)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43.3(122)
Less than 1,000,000		21.3(60)		
Less than 1,500,000		12.1(34)		
Less than 2,000,000		11.0(31)		
Less than 3,000,000		11.3(32)		
Over 3,000,000		1.1(3)		
Living Expense Dependence	Fixed Monthly Income of the Surveyed	17.7(59)	100.0(365)	
	Fixed Monthly Income of Family	42.5(142)		
	Donation	1.5(5)		
	Government Aid	18.6(62)		
	Assistance of Others or Relatives	9.3(31)		
	Others	10.5(35)		
Surveyed	Self	63.3(209)	100.0(330)	
	Proxy(Parent, Teacher)	36.7(121)		
Factor	Average	S.D	Max	Min
Age	35.42	17.67	96	4
Family number	3.56	1.57	9	1
Period	20.85	12.78	60	1
Monthly Income	55.057	41.026	1800000	10000

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49.7%, ‘대체로 건강하다’ 40.7%, ‘건강하다’ 9.6%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약

Table 3. Opinion by Individual of Dental Health

Dental Health	PD	MR	Others	Total
Very Good	3.9(14)	3.1(11)	2.5(9)	9.6(34)
Good	23.0(82)	11.8(42)	5.9(21)	40.7(145)
Bad	29.2(104)	11.8(42)	8.7(31)	49.7(177)
Total	56.2(200)	26.7(95)	17.1(61)	100.0(356)

Table 4. Frequency of tooth brushing

Brushing frequency(day)	PD	MR	Others	Total
3 use(%)	12.1(43)	6.7(24)	6.7(24)	25.6(91)
2 use(%)	31.7(113)	12.9(46)	8.1(47.5)	52.8(188)
1 use(%)	10.1(36)	5.9(21)	1.1(4)	17.1(61)
1use/2-3day(%)	2.0(7)	0.8(3)	0.6(2)	3.4(12)
no use(%)	0.3(1)	0.3(1)	0.6(2)	1.1(4)
Total	56.2(200)	26.7(95)	17.1(61)	100.0(356)

$\chi^2 = 15.692$ $df = 8$ $p < 0.05$

50%가 치아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장애인들의 경우 치아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에 대한 의료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구강보건 행동과 구강질환

① 구강보건 행동과 태도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치횟수, 취침 전 양치 여부, 스케일링(치석제거) 경험, 양치질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질문에는 Table 4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양치 횟수를 보면, ‘2번’ 52.8%, ‘3번 이상’ 25.6%, ‘1번’ 17.1%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79.0%가 아침과 저녁 2회, 또는 아침, 점심, 저녁 3회에 걸쳐 양치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행동은 비장애인들의 구강보건행동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양치회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장애 유형과 양치회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 = 15.692$ $df = 8$ $p < 0.05$).

저녁식사 또는 취침 전 양치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꼭 닦는다’가 62.1%, ‘가끔 닦는다’가 26.1%, ‘닦지 않는다’가 1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의 37.9%가 부정적인 양치습관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의 구강질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이나 계몽활동, 또는 정기검진을 통해 긍정적인 양치습관을 형성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또한 초기에 구강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스케일링(치석제거) 경험을 보면, ‘없다’가 56.7%, ‘불규칙적이다’가 36.3%, ‘매년 정기적으로

Table 5. Brushing Habit

After dinner / Before sleep	PD	MR	Others	Total
Regular Brushing	35.4(126)	15.2(54)	11.5(41)	62.1(221)
Irregular Brushing	13.8(49)	8.1(29)	4.2(15)	26.1(93)
No Brushing	7.0(25)	3.4(12)	1.4(5)	11.8(42)
Total	56.2(200)	26.7(95)	17.1(61)	100.0(356)

Table 6. Scaling Experience

Experience	PD	MR	Others	Total
None	30.0(106)	17.0(60)	9.6(34)	56.7(200)
Regular	2.8(10)	2.5(9)	1.7(6)	7.1(25)
Irregular	23.2(82)	7.1(25)	5.9(21)	36.3(128)
Total	56.1(198)	26.6(94)	17.3(61)	100.0(353)

Table 7. Importance of brushing

Importance of brushing	PD	MR	Others	Total
Right brushing	36.4(129)	19.5(69)	11.9(42)	67.8(240)
Good dentifrice & Brush	4.5(16)	1.1(4)	1.7(6)	7.3(26)
Frequency of brushing	11.9(42)	4.8(17)	2.5(9)	19.2(68)
Time of brushing	3.4(6.0)	1.4(5)	0.8(3)	5.6(20)
Total	56.2(199)	26.8(95)	16.9(60)	100.0(354)

한다’ 7.1%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치석제거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케일링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구강질환의 예방차원에서 무료순회진료나 정기검진을 통해 스케일링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인 양치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올바른 방법으로 닦는 것’ 67.8%, ‘이 닦는 빈도’ 19.2%, ‘좋은 칫솔과 치약’ 7.3%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올바른 양치 방법과 양치빈도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구강관리 습관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치 방법과 양치의 빈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구강질환여부

장애인들의 구강질환 경험을 보면, 치통이나 잇몸 출혈이 ‘있었다’는 응답이 58.9%로 나타났으며, ‘없었다’가 32.1%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생각에서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50% 이상이 구강질환의 증상인 치통이나 잇몸출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와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장애인들은 구강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적 개입이나 예방활동에는 소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진료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구강보건 교육이나 충치예방 등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 ‘없었다’가 53.0%, ‘있었다’가 41.1%의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이나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등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교

Table 8. Experience of Tooth Pain or Gum Bleeding

Pain or bleeding	PD	MR	Others	Total
Yes	34.9(124)	13.5(48)	10.4(37)	58.9(209)
No	17.5(62)	9.9(35)	4.8(17)	32.1(114)
Non-consciousness	3.7(13)	3.4(12)	2.0(7)	9.0(32)
Total	56.1(199)	26.8(95)	17.2(61)	100.0(355)

Table 9. Experience of Dental Clinic Treatment

Experience Treatment	PD	MR	Others	Total
Yes	20.0(71)	14.1(50)	17.1(25)	41.1(146)
No	33.0(117)	11.3(40)	8.7(31)	53.0(188)
Non-consciousness	3.1(11)	1.4(5)	1.4(5)	5.9(21)
Total	56.1(199)	26.8(95)	17.2(61)	100.0(355)

Table 10. Participation by the Surveyed in Dental Health Education

Participation in Education	PD	MR	Others	Total
Necessary	6.2(22)	5.1(18)	1.4(5)	12.7(45)
Possible	25.7(91)	15.0(53)	11.0(39)	51.7(183)
Non-possible	19.5(69)	5.4(19)	3.1(11)	28.0(99)
Non	5.1(18)	1.1(4)	1.4(5)	7.6(27)
Total	56.5(200)	26.6(94)	16.9(60)	100.0(354)

$\chi^2 = 17.368$ df = 6 p < 0.01

육을 실시한다면 참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참석할 것이다’ 51.7%, ‘반드시 참석할 것이다’ 12.7%로 나타나 65.0%가 구강보건 교육에 참석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필요하지만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장애인들이 욕구는 있으나 참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형태의 교육이나 진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응답자들의 치과 이용빈도를 보면,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가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몇 년에 한번 정도’가 31.7%, ‘1년에 한번 정도’가 21.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치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치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강질환의 경우, 치료 우선의 진료방식보다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보건 인식도를 갖게 함으로써 구강상병의 이환율을 줄이는 예방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응답자들이 치과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의료카드 종류는 ‘의료보험카드’ 55.6%, ‘의료보호카드’ 4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의 41.6%가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장애와 구강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와 구강건강과의 관계를 질문했다. 응답결과를

Table 11. Treatment Frequency of Dental Clinic

Frequency	PD	MR	Others	Total
1 per 6 month	2.8(10)	3.4(12)	1.4(5)	7.6(27)
1 per year	10.4(37)	8.1(29)	3.4(12)	21.9(78)
1 per 2 - 3year	19.7(70)	6.2(22)	5.9(21)	31.7(113)
only per tooth pain	19.9(71)	8.4(30)	5.1(18)	33.4(119)
Non	2.5(9)	0.3(1)	1.1(4)	3.9(14)
Others	0.8(3)	0.3(1)	0.3(1)	1.4(5)
Total	56.2(200)	26.7(95)	17.1(61)	100.0(356)

Table 12. Use of Insurance Card

	PD	MR	Others	Total
Insurance Card	28.5(100)	18.2(64)	8.8(31)	55.6(195)
Alternative Card	26.8(94)	7.7(27)	7.1(25)	41.6(146)
No	0.9(3)	0.6(2)	0.6(2)	2.0(7)
Others	0.3(1)	0.3(1)	0.3(1)	0.9(3)
Total	56.4(198)	26.8(94)	16.8(59)	100.0(351)

Table 13. Relation of Disabilities with Dental Health

Relation	PD	MR	Others	Total
Affirmative	12.8(45)	9.4(33)	4.6(16)	26.8(94)
Somewhat Affirmative	16.2(57)	10.8(38)	8.0(28)	35.0(123)
No	16.2(57)	1.7(6)	2.3(8)	20.2(71)
Non-consciousness	10.3(36)	5.1(18)	2.6(9)	17.9(63)
Total	55.6(195)	27.1(95)	17.4(61)	100.0(351)

$\chi^2 = 26.707$ df = 6 p < 0.001

보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가 많다’라는 응답이 26.8%, ‘관계가 없다’라는 응답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의 61.8%가 장애와 구강건강과 관계가 있으며, 장애는 구강건강에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와 구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와 구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6.707$ df = 6 p < 0.001).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의 경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와 ‘관계가 없다’가 16.2%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가 많다’가 12.8%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지체의 경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가 10.8%로 가장 높았고, ‘관계가 많다’가 9.4%로 나타났으며, ‘관계가 없다’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장애와 중복장애 등으로 구성된 기타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8.0%, ‘관계가 많다’ 4.6%로 나타나 정신지체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고 찰

장애인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구강상병 이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주요 장애문제의 해결에 급급해 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구강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 해결 순위의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구강질환에 대한 연구로는 외국의 경우 1950년 Leonard²⁾가 뇌성마비 아동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연구 발표한 이후에 Wessels³⁾, Cohen⁴⁾, Kising⁵⁾, Gullikson⁶⁾ 등이 심신장애인의 특수 구강상태에 대해 보고했으며, Castald⁷⁾, Jorgensen⁸⁾, Smith⁹⁾, Johnson과 Albertson¹⁰⁾은 심신장애인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 치과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보고하였다. Creighton¹¹⁾은 Mongolism의 치아우식경험도를, Eisenberg¹²⁾는 심신장애 아동의 치아우식과 치료에 대해 연구·보고하였

으며, Brown¹³⁾은 심신장애인들의 구강질환 실태를 조사·보고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상옥¹⁴⁾은 지체 부자유 아동의 우식경험도 및 구강상태에 대해, 허만옥¹⁵⁾은 지체부자유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정상아동에 비해 극히 불량하였고, 연령증가에 따라서도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종갑¹⁶⁾과 지인에¹⁷⁾ 등은 각각 소아마비 아동과 정신박약아의 치아우식경험을 및 구강상태를 조사 보고한 바 있었다. 최근에 신승철¹⁸⁾은 Down 증후군 아동과 일반 정신박약 아동간의 구강위생상태에 관한 비교 조사연구를 하였으며, 정의태¹⁹⁾는 전국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구강보건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문화관습을 비롯한 치주병, 치아우식경험도 등 17가지의 구강보건지표를 통해 우리 나라 장애인들이 구강보건실태를 파악하고 구강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적되었던 사항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장애인 전체적으로 볼 때,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급치과의료 수요가 매우 높은 수요자율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충전 유치 및 영구치치수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치료받아야 할 치아에 대한 치과적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상현²⁰⁾ 서울 특별시에 존재하는 재활시설 수용 장애인 가운데 698명을 대상으로 연성부착물 부착도를 비롯한 치주병, 치아우식경험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연성부착물 부착율이 전체적으로 높아 구강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고,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정박군의 영구치열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치주치치수요는 고도의 치주치치보다는 단순한 구강보건 관리교육 및 치면세마의 수요가 구강보건학적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신영순²¹⁾ 뇌성마비 아동의 치아우식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영구치의 치아우식률이 정상아동에 비해 뇌성마비아동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구강 위생지수 역시 정상아동보다 더 높아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함을 지적하였다. 최길라²²⁾는 정신박약자의 칫솔질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칫솔질 교육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치태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장애인에게 알맞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구강상병의 이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신지체인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구강상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김종배²³⁾는 정신박약자의 구강위생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정신박약자의 구강내 청결상태는 매우 불량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악화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병채²⁴⁾는 다운증후군 아동에게서 영구치 우식 경험율과 간이 구강 위생지수가 높았고 부정교합과 치조골 소실 정도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현주²⁵⁾는 장애인의 구강보건 실태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의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와 시설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욱²⁶⁾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에서 장애정도가 심하고 치과 내원 시 동행인이 없으며, 치과치료에 대한 인지된 필요성이 낮을수록 장애인인 치과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약해진다고 하였다. 김희경²⁷⁾은 교사들의 인식도 및 관리 태도를 통한 장애인의 구강보건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구강관리실태를 연구하였다. 종합적으로 장

애인들의 구강위생상태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매우 불량하며, 이러한 특징은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치과질환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충치발생율을 고려해 볼 때, 충치치료를 받은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들의 구강보건의료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치과이용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치아건강에 대한 응답에서 약 50%가 치아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양치횟수를 보면, 79.0%가 아침과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 3회에 걸쳐 양치질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약 21.0%는 '1회' 또는 '가끔씩'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식사 또는 취침 전에 양치하는 습관을 보면, 62.1%가 '꼭 닦는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56.7%가 스케일링(scaling)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8.9%가 치통이나 잇몸출혈 등과 같은 구강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 대부분은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치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53.0%가 구강보건교육이나 충치예방 등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들의 92.4%가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석의사를 밝힌 사람은 65.0% 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치아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양치습관, 스케일링(scaling) 경험 등의 구강보건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강보건 행동으로 인해 약 58.9%가 구강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강보건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듯이 응답자들의 61.8%가 장애와 구강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구강보건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보건인식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강보건지식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가정방문형태(이동진료)의 교육이나 진료가 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구강질환의 예방 차원에서 무료순회진료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치료 및 스케일링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접근권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1999년 9월 20일에서 10월 23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 6곳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과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구강보건 행동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들은 자신의 치아가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가 49.7%로 높게 나타났다.
2. 장애인들의 양치횟수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p < 0.05$).
3. 장애인들은 scaling(치석제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56.7%로 높게 나타났다.

4. 장애인들은 치통이나 잇몸 출혈 경험이 58.9%로 높게 나타났다.
5. 구강보건교육에 참석하겠다는 장애인은 6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6. 치과이용빈도는 불규칙한 방문을 하는 경우가 65.1%로 정기적인 치과방문으로 구강을 관리하는 비율이 낮았다.
7. 의료보험카드는 41.6%가 의료보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8. 장애와 구강건강은 관계가 있다가 6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 Leonard RC: Dentistry for the cerebral palsy. JADA 41: 152-158, 1950.
3. Wessels KE: Oral conditions in cerebral palsy. Dent Clin N Am 14: 455, 1960.
4. Cohen MM: Aspect of mongolism. Oral Surg 14: 92-107, 1961.
5. Kisling E: Periodontal conditions in adult patient in Down's syndrom. JADA 73: 712-719, 1963
6. Gullikson JS: Oral finding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J Dent Child 3: 133-137, 1969.
7. Castaldi CR: Dental health care programs for the handicapped child. JADA 52: 670-676, 1956.
8. Jorgensen NB: Dental management of adult patient with cerebral palsy. JADA 57: 843-850, 1958.
9. Smith JE: Improving oral hygiene in handicapped children by use of electric toothbrush. J Dent Child 31: 199-203, 1964.
10. Johnson R & Albertson D: Plaque control for handicapped children. JADA 84: 824-828, 1972.
11. Creighton WE: Dental caries experience in institutionalized mongoloid and nonmongoloid children in North Carolina and Oregon. J Dent Res 45: 66-75, 1966.
12. Eisenberg LS: The caries and treatment of handicapped children. J Dent Child 9: 24-32, 1976.
13. Brown JP: A review of controlled surveys of dental disease in handicapped persons. J Dent Child 9: 17-23, 1976.
14. 김상옥: 지체부자유아동의 구강위생상태에 대한 고찰,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 13-17, 1975.
15. 허만옥: 지체부자유아동의 구강위생상태에 관한 통계학적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16. 이종갑: 소아마비환자의 치아우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치과대학 논문집 1: 389-392, 1981.
17. 지인에: 정신박약자의 구강상태에 관한 고찰, 대한소아치과학회지 8: 77-87, 1981.
18. 신승철: Down 증후군 아동과 일반 정신박약 아동간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22: 411-418, 1981.
19. 정의태: 한국심신장애자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구강보건의료수요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0. 유상현: 심신장애자의 구강보건 실태 및 상대구강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1. 신영순: 뇌성마비아동의 치아우식증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4: 45-52, 1977.
22. 최길라: 정신박약자들의 칫솔질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3. 김종배, 김주환: 정신박약자의 구강위생상태 조사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 477-480, 1970.
24. 이병채, 김형태, 이상호: 다운증후군 아동의 구강상태,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9(2): 537-544, 1992.
25. 이현주: 장애인의 구강보건실태 조사 보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6. 김동욱: 장애인의 구강보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27. 김희경: 교사들의 인식도 및 관리태도를 통한 장애인의 구강보건 관리 실태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